



USB 등 이동디스크에 저장한 공인인증서



홍채 인식



카카오뱅크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짜증 날릴 기술 '나야나'

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 문자메시지·생체인증 등 금융업계 자체 인증 활용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체 기술로 관심이 쏠린다. 이미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기술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들 대안 기술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인인증서에 의존해 온 업무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 송금 활성화...블록체인·생체인증 주목=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법령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실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방침이다. 사실상 '공인' 타이틀을 떼 일반 인증수단과 똑같이 경쟁시키겠다는 의미다.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인인증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로 자체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돼 해커의 먹잇감이 돼왔다. 또한 설치를 위해서는 액티브X 등 각종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작년 8월 말 15개 금융회사 21개로, 2016년 10월 말(10개사, 14개)보다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는 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하는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 QR 코드로 인증하는 국민은행 등이 있다.

국내 11개 증권사도 지난해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체인증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체인증은 위조나 해킹이 어렵고 간편하다는 점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페이와 LG페이 등은 스마트폰의 지문인식을 이용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금융권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전자서명 신뢰도 확보 급선무...기업 책임 커질 듯=공인인증서가 사라지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는 신뢰할 만한 전자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등 본인 확인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일정한 전자

서명 자율인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믿을만한 전자서명의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인인증서에 의존해온 업계의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지난 2015년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건, 2016년 3545만건, 2017년 3792만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사실인증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게 보안업계의 분석이다. 공인인증서 체계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정부와 개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채택했지만,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면피할 여지가 있던 셈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면 기업의 관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우선 택할 명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여러 인증 수단 중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을 택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국립과학관이 진행중인 'AI 랩'의 모습. 'AI 랩'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 ICT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으로 오는 2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광주국립과학관 제공>

가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완전정복

광주과학관 AI 아카데미 앱 제작·로봇코딩 등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하 과학관)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AI 아카데미'를 오는 27일과 2월24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AI 아카데미'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AI 아카데미'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스마트폰 앱 제작, 로봇코딩, 드론코딩, 3D프린터 모델링·제작 등 소프트

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미래융합창조문화재단 이사이자 '2035년의 미래로 가라'의 저자 박문혁 교수의 '내 손안의 4차 산업혁명'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과학관은 또 'AI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AI 랩'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AI 랩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등을 체험하며 미래 ICT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이다.

과학관은 2월 초 AI 아카데미의 2회차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광주지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및 학부모이며, 국립광주과학

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120명(학생 60명, 성인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결과는 마감 후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20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도입의 무화에 앞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될 소프트웨어 교육에 익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코딩교육 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학부 모들에게도 미리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불법 지원금 이통 3사 과징금 506억

유통점 171곳 각 100만~300만원 과태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송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송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사에 과태료 750만원

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사는 전국에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 300여개를 운영중이지만 단일법인이라서 과태료도 법인 기준으로 부과됐다.

방송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

월이었다.

방송위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시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정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도매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작년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통별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정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고가 패시브? 아이폰X 판매량 폭

판매량 감소로 조기 단종설이 나오는 애플의 아이폰X이 국내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24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X은 두 달간 총 40만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예약판매 초기 일주일 동안은 하루 1만대 이상이 판매되다가 1주일 후에는 5000대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에는 2000~3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작년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8은 최근에도 5000~6000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은 1만대 안팎이 팔리며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중이다.

아이폰X은 출시 전 '6박 7일' 출시까지 등장하고 초기 사전예약 물량이 몇 분만에 매진되는 등 화제를 모으며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150만원 안팎의 비싼 가격 탓에 이 같은 열기가 대중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치 디자인'에 대한 반감과 작년 연말 터진 애플의 구형 아이폰 모델 '배터리 게이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아이폰X 단일 모델이 아니라 전체 아이폰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초고가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라인업이 다변화돼 애플 이익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폰8과 아이폰X을 더한 일평균 판매량만 해도 전작인 아이폰7 판매량의 120% 수준이다.

통신사들이 재고 소진 목적으로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의 출고를 대폭 낮추면서 '중저가폰'이 된 구형 아이폰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